경강의 시작

광나루길

경강이 시작되었던 첫번째 나루터길.
광진교 8번가에서 멋진 전시, 공연도 보고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홍보관에서 힘과 패기가 넘쳤던 고구려도
느껴볼 수 있다.

광나루길

아차산성

광진교 8번가

광진교8번가

광진교부터 광진정보화도서관, 광나루터를 잇는 광나루 낭만의 거리에서는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광진교8번가는 세계적으로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교각아래에 있는 전망대로 차도와 자전거도로, 인도가 잘 갖추어진 곳이다. 마술공연, 로큰롤, 재즈콘서트 관람을 비롯해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까지 만날 수 있다.

광나루터

광나루는 한강의 중하류에 위치하여 교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백제가 북방 민족과 대치하면서 광나루는 군사작전의 요충지이자 선진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외교·문화의 통로였다. 또한 신라가 발전하면서 불교문화가 이 나루터를 통해 수용되었고 철기문화도 광나루를 통해 전해졌다. 조선시대에는 광나루에 관리를 두어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등지에서 서울로 운송되는 세곡을 관리·감독했다.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홍보관

아차산 유적지와 관련된 패널, 항공사진, 중원고구려비 탁본 등이 있으며, 아차산에서 확인되는 토기와 기와류 등의 유물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각종 고구려 유적 및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동영상 및 이미지 자료와 체험을 위한 복식과 관련 기자재도 구비하고 있다.

아차산성

광진구에 위치한 아차산(해발 285m)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중앙에 쌓은 삼국시대 산성이다.
아차산성은 삼국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예약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yeyak.seoul.go.kr/main.web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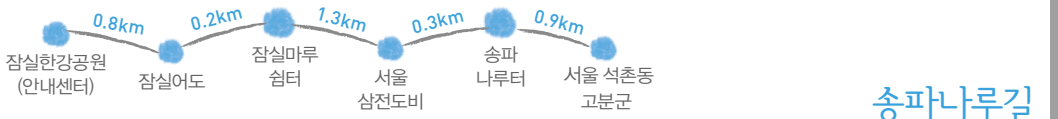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01 코스
경강의 시작, 광나루길

상업도시의 중심

송파나루길

한강의 건강한 생태를 느낄 수 있는 잠실어도에서
물고기도 관찰하고 서울과 경기도 광주를 잇는 송파나루터를 지나
석촌동고분군까지 운치있는 한강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송파나루길

송파나루터

잠실어도

잠실어도

잠실대교 밑에 자리한 잠실어도는 1986년 한강종합개발로 만들어진 수중보로 인해 도약력이 약한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든 물고기길이다. 물고기들이 산란기에 떼 지어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물고기를 관찰하며 한강의 생태를 느낄 수 있는 잠실지구의 자랑거리다.

잠실마루쉼터

한강 조망이 좋은 잠실대교 남단에 위치한 잠실마루쉼터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낮에는 한강어도를 볼 수 있으며 밤에는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서울 삼전도비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인 1636년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서 45일간 항쟁하다 결국 청나라 군대의 본영이 있던 삼전도로 나와 항복한 뒤 1639년에 세운 청 태종 공덕비이다. 이 비가 최초로 세워졌던 곳은 지금의 송파구 삼전도나루 근처였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의 위치(송파구 잠실동 47번지)로 옮겨졌다.

송파나루터

서울과 광주(廣州)를 잇는 나루이자 조선시대 전구 10대 상설시장의 하나로 꼽혔던 송파시장을 배경으로 번성, 각종 물화의 집산지였다. 당시 270여 호의 객주집이 있을 정도로 상업의 중심지였으나,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및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점차 기능이 쇠퇴하였다.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석촌동은 예로부터 돌이 많았기에 '돌마리'라고 불렀다. 백제 초기의 무덤으로 봉토분 무덤이 22기, 적석총이 66기가 존재했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중 3호분은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무덤으로 바닥의 지름이 50m에 달하여 4세기 후반경 백제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약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yeyak.seoul.go.kr/main.web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02 코스

산업도시의 중심, 송파나루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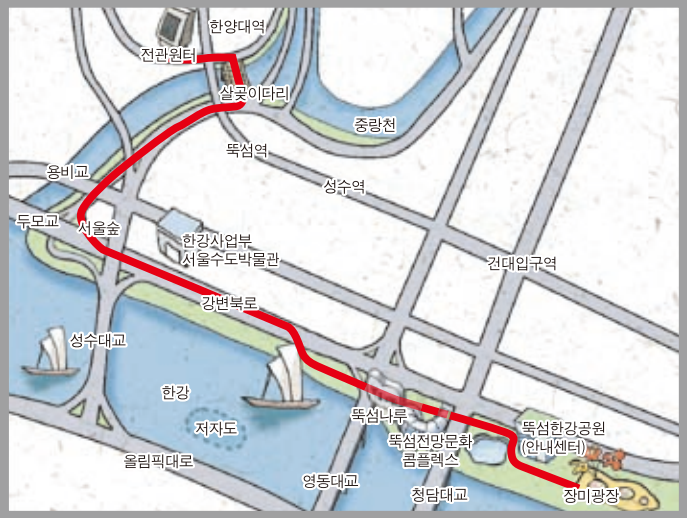
목재의 집결지

뚝섬나루길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한강과 조망하고
세곡선이 오갔던 뚝섬나루와 국왕이 수시로 행차했었다는
살곶이다리를 비롯해 옛날 나그네들이 묵어갔던 여관인
전관원터도 찾아볼 수 있다.

뚝섬나루길

살곶이 다리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몸이 가늘고 긴 원통형의 자벌레(자벌레나방의 애벌레) 형태로 길이 240m, 면적 1,931㎡ 규모의 전망문화공간이다. 총 4층으로 약 7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전망대와 옥외데크전시장, 시민휴식공간, 공연무대, 카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미광장

뚝섬한강공원의 숲 속에 단장된 6,040㎡규모의 장미정원은 5월이 되면 40여 종의 장미가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유럽풍으로 꾸며진 장미정원은 비밀의 정원에 와 있는 듯한 신비로움을 주는 곳으로 뚝섬한강공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뚝섬나루

뚝섬 나루터는 현재 광진구 자양동 강변에 있는 한강공원(과거 뚝섬유원지 혹은 뚝도유원지)에 있었던 나루터로 독백이라고도 불렸다. 경상도·강원도의 세곡 운송을 위해 이 나루터에 선착장을 두고 한강을 오가는 세곡선을 관리했다. 조선 후기에는 강원도에서 오는 목재가 하역되는 곳으로 변하여 나라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한 적도 있다.

살곶이다리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다리 가운데 가장 긴 다리인 '살곶이다리'는 이 일대가 '살곶이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데서 유래하였는데 「한경식략」 권량조에 보면 그 공식 명칭은 제반교라 하였다. 살곶이다리는 국왕의 군대사열장과 매사냥터로 이름이 났던 곳으로서 이 다리를 통해 태종과 순조가 모셔져 있는 헌인릉과 성종과 중종이 모셔진 선정릉에 갈 수 있어 국왕이 수시로 행차했다.

전관원터

살곶이다리 근처에 있던 나그네들이 묵어가던 여관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던 민영숙박소. 나루를 건넜으나 도성 문이 닫혀 도성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나그네나 도성 문이 열리는 시각보다 더 이른 새벽에 나루를 건너려는 나그네들이 묵어가던 여관이었다. 서울 근처의 원은 동대문 밖의 보제원, 서대문 밖의 홍제원, 남대문 밖의 이태원, 그리고 광희문 밖의 전관원이 있어 이를 4대원이라 한다.

예약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yeyak.seoul.go.kr/main.web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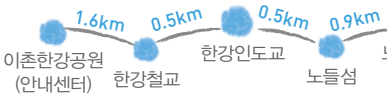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03 코스
목재의 집결지, 뚝섬나루길

백로가 노닐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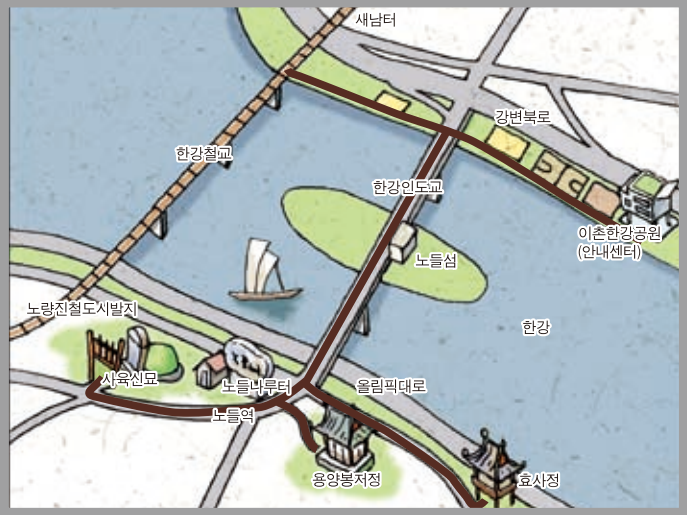
노들나루길

한강에 가설된 최초의 다리인 한강철교와
백로가 노닐었다던 노들섬을 만날 수 있는 곳.
단종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이들을 추모하는 사육신묘 등이 있어
한강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나루터길이다.



노들나루길

한강철교



한강철교

한강철교(漢江鐵橋)는 한강의 교량 중 최초로 건설된 교량으로, 1900년 한강 이남으로 노량진역에서 끊겨 있던 경인선을 용산역과 남대문역(현 서울역)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건설된 철도 전용 교량이다. 처음에 노량철교로 불리던 이 다리는 철마로 사람을 실어 나르던 뱃길로만 이어지던 강남북교통과 국토를 잇는 길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대단위 토목공사로 기록되었다.

한강인도교

한강철교 설치 이후 한강에 최초의 인도교가 가설된 것은 한일병합 6년 뒤인 1916년이었고, 1925년 대홍수로 인도교가 떠내려가자 1929년 다시 준공되었다. 그후 교통량 증가로 1936년에 현재의 타이드 아치형식의 다리로 개축됐는데, 한국전쟁 때 폭파되는 수난을 겪었다. 1958년 복구된 다리는, 1982년 2월에 기존 인도교 옆에 같은 형태와 규모의 다리가 놓여 쌍둥이다리가 되면서 한강대교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사육신묘

노들섬

노들섬은 여의도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대교가 통과하고 있고, 대부분은 모래와 갈대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섬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면, '노들'은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이란 뜻이고, 지금의 노량진 주변을 의미한다. 1995년 '노들섬'으로 개칭 이전에는 한강대교가 건설된 1917년 당시 다리의 중앙에 있던 모래언덕에 둑을 쌓으면서 '중지도(中之島)'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사육신묘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1445년)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자 이에 불복하고 단종 복위에 힘쓰다 목숨을 잃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에 추가로 김문기를 현창하여 모신 곳이다. 사육신의 충성심과 장렬한 의기를 추모하고자 숙종 7년(1681년)에 민절서원을 세웠고, 정조 6년(1782년)에는 신도비를 세웠다.

용양봉저정

동작구 본동 주민자치센터 뒤에 있는 용양봉저정은 정조15년(1791)에 지어진 행궁이다. 정조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륭원의 참배길에 한강을 건넌 후 잠시 휴식하던 곳이다. 효성이 지극한 정조는 1789년 부친인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륭원을 조성하고 자주 참배했다. 「용이 뛰놀고 봉황이 높이 난다」는 이름의 이 정자는 당시 한강을 건널 때 놓았던 배다리의 화려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한강변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버이를 섬기는 역사의 교훈이 되고 있다.

효사정

노량진 나루터 남쪽 언덕에 있던 조선초 공숙공 노한의 정자이다. 지금의 건물은 일본 신사 자리에 1993년 신축했다.

예약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yeyak.seoul.go.kr/main.web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희망서울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04 코스

백로가 노닐던 곳, 노들나루길

새우젓내음 가득한

서강나루길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등 모든 세곡선이 모였던 서강나루,
광흥창, 공민왕, 노국공주 그리고 최영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고
1968년 이후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밤섬까지 만나볼 수 있다.

서강나루길

공민왕사당

서강나루터

서강나루

서강나루는 배가 닿기에 지형이 알맞아 전라·경상·충청 등 3도와 경기 및 서북지방의 공미를 하역하던 중요한 나루터로 현재 마포구 신정동 강변에 있었던 포구이며 일명 서호(西湖)라고도 하였다. 조세곡 수송선이 모두 서강에 모여들었으므로 서강나루에는 공미를 검사하던 점검청과 선박세를 거둬들이던 공세청, 그리고 관리의 봉록미를 관장하던 광흥창이 위치해 있었다.

광흥창

와우산 동편 기슭 창전동에는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광흥창이라는 큰 창고가 있었다. 이곳 광흥창은 황해·평안·전라·충청 등 여러 도와 경기 연안에서 들어오는 공미를 모아서 쌓아 두었던 곳이다. 서해를 통해 한양에 닿은 배에서 곡물을 내려 저장했다가 관헌들의 녹봉을 지급하였다.

공민왕사당

와우산 공원 남쪽 아래 공민왕과 노국공주 그리고 충신 최영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다. 조선초 이곳 서강 일대에 양곡창고를 지을 때 공민왕이 동네노인의 꿈에 나타나 신당을 짓고 봉사하라 해서 신당을 짓고 매년 음력 10월 1일 자시에 제사를 성대히 지내왔다. 제사가 소홀하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창고에 불이 나거나 재앙이 있어 제사에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밤섬부군당

밤알 모양같이 생겼다고 해서 밤섬(栗島)이라 불리는 이 섬은 1968년 여의도 개발을 위해 섬을 폭파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300여 년 전부터 밤섬에서 지내오던 밤섬부군당도당굿은 서교동 뒷산인 와우산 기슭으로 집단 이주한 주민들이 부군당에 모여 지금도 매년 음력 1월 2일, 지역수호신인 부군신에게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비는 제례를 올린다.

예약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yeyak.seoul.go.kr/main.web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05 코스
새우젓내음 가득한, 서정나루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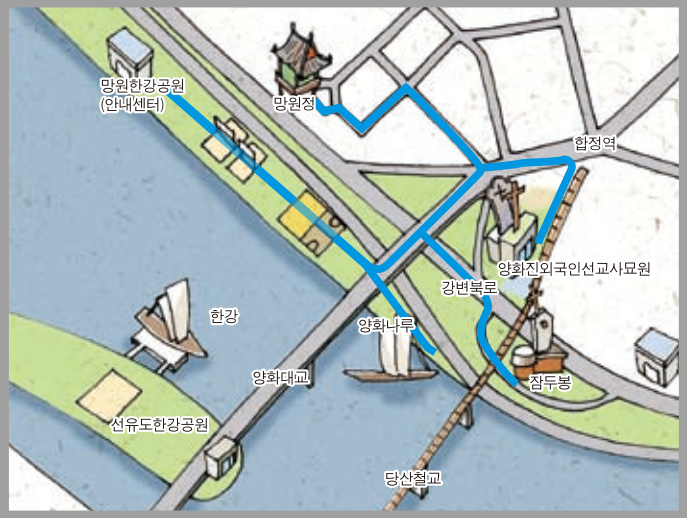
군사·문화·경제의 요충지

양화나루길

멀리 있는 경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망원정과
조선의 3대 나루터였던 양화나루가 있는 곳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중국에서도 부러워 했다는 잠두봉까지 있는 이 나루터길을
운치있게 걸어볼 수 있다.

양화나루길

잠두봉



망원정

망원정 자리는 원래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이 세종 6년(1424)에 별서(別墅)를 마련하고 약간의 농사도 지으며 강상(江上)의 여유를 즐기던 곳이었다. 성종 15년(1484) 성종의 형 월산대군이 퇴락한 희우정을 효령대군으로부터 얻어 고쳐 짓자 성종이 '望遠亭(망원정)'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다. 망원정은 정자에 오르면 멀리 산과 강을 잇는 경치를 잘 볼 수 있음을 뜻한다.
1925년 큰 홍수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1989년 10월에 복원되었다.

망원정

양화나루

한강진, 삼전도와 더불어 조선 3대 나루의 하나로서 도성에서 김포 강화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길목이다. 지리적으로 노량진, 동작진, 한강진, 송파진과 함께 서울의 5대 주요한 나루터로서 인천과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해상 통로의 전진기지이자 서울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문인들의 발길이 잦았고 중국 사신들이 오면 빼놓지 않고 다녀갔다고 한다.

잠두봉

봉우리의 생긴 모양이 누에가 머리를 치켜든 것 같다 해서 생긴 이름이다.
또 봉우리의 모양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용두봉'(龍頭峰)이라고도 하였고, 예로부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중국에까지 이름이 났었다. 조선시대에 정부 고관들도 한강에 배를 띄워 용산 마포의 강류를 따라 잠두봉 앞에 이르면 그 봉우리에 올라가 하루를 즐기곤 했다. 지금은 천주교 순교사적지가 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으로 선교 개척활동을 전개한 알렌과 언더우드가 양화진 언덕을 묘지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 이곳에 헤론을 처음으로 안장하면서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이 자리 잡게 되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안장돼 있다.

예약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yeyak.seoul.go.kr/main.web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06 코스
군사·문화·경제의 요충지, 양화나루길

신선이 놀았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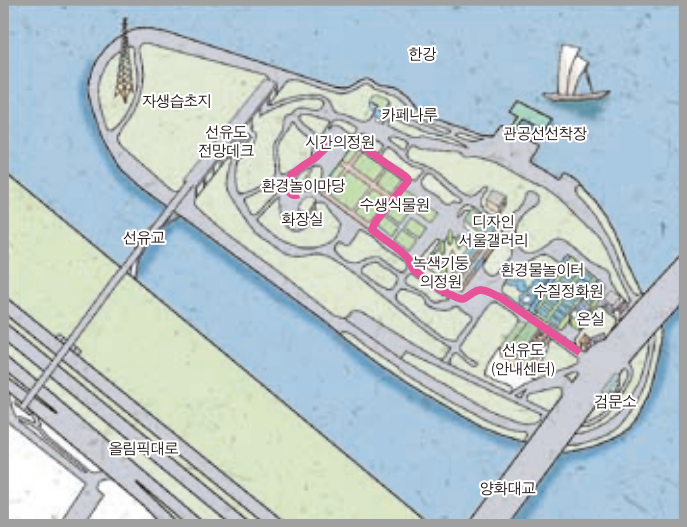
선유도길

길 따라 걷는 여유가 있는 선유도공원에는 환경놀이마당과
환경교실이 있는 원형공간, 수로와 나무를 따라 걷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의 정원 그리고 수생식물 관찰이 가능한 수생식물원이 있다.
이외에도 녹색기둥의 정원과 환경물놀이터, 수질정화원 등을 만나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배워볼 수 있다.

선유도한강공원 (안내센터) → 온실 → 수질정화원 → 환경물놀이터 → 녹색기둥의 정원 → 수생식물원 → 시간의 정원 → 환경놀이마당 (4개의 원형공간)

선유도길

시간의 정원



시간의 정원

보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감상을 즐길 수 있다. 수로를 재활용한 상부의 데크(목재마루가 깔린 산책로)를 지날 때는 정원을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며 나무 사이를 걸어 다니는 느낌으로 키 큰 나무의 가지와 열매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네 개의 원형공간

원형은 그대로 둔 채 내부 공간이 원형극장, 환경놀이마당, 환경교실,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다.

수생식물원

정수장의 여과지 지붕을 걷어내고, 4개의 독립된 수조를 만들어 재활용한 수생식물원은 낮은 수반에 자리 잡은 다양한 수생식물의 모습과 생장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녹색기둥의 정원

정수장의 제 1정수장으로 쓰이던 곳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들어내고 기둥만을 남긴 정원이다.

환경물놀이터

수질 정화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개울처럼 흐르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물놀이 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수질정화원

약품침전지를 재활용한 수질정화원은 물을 정화하는 여러 수생식물의 생장과 정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예약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yeyak.seoul.go.kr/main.web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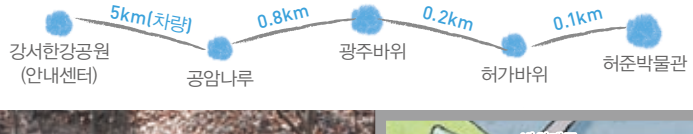
07 코스

신선이 놀았던 곳, 선유도길

형제투금 설화가 전해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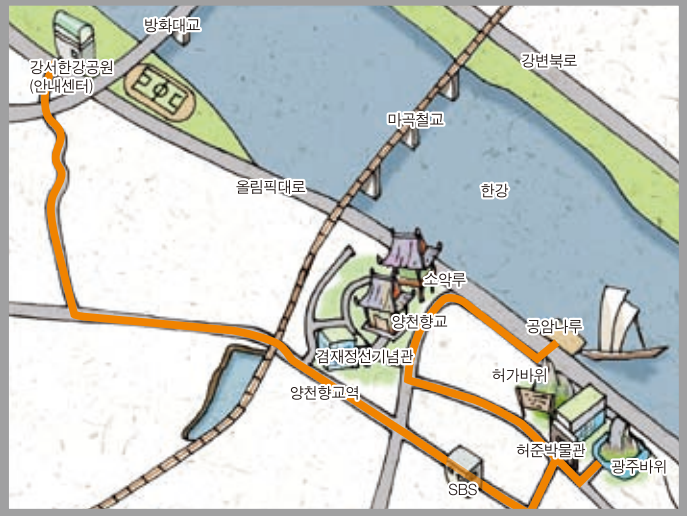
공암나루길

경기도 고양시의 행주나루와 마주하고 있는 공암나루와
너른 나루에 있는 바위란 뜻의 광주바위, 허가바위 등이 있으며
한의학의 대가였던 허준선생의 박물관까지 있다.



공암나루길

허가바위



공암나루터

공암나루

현재의 강서구 개화동 강변에 있었던 나루로서, 강 건너 고양시 내·외동의 행주나루와 마주하고 있다. 일명 공암도,공총(孔叢), 구멍바위나루라고도 하였다. 양화도(楊花渡) 나루와 더불어 양천·강화에서 도성으로 통하는 길목으로서, 일찍부터 개설된 나루이기는 하지만 선객이 붐비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사선(私船)만이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있어서 관에서 진선(津船) 5척을 배치하였고 양화도 별장의 지휘를 받았다.

광주바위

가양2동 공암나루에 서 있는 바위가 광주바위이다. 높이 12m의 세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바위는 광제(廣濟) 바위 또는 광주(廣州)바위라고 한다. 광제바위는 너른 나루에 있는 바위라는 뜻으로 백제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한강의 물길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곳을 공암나루라 한 것으로 광주바위라 하는 것은 광제바위가 잘못 전해져서 얻은 이름이라 추측된다.

허가바위

허준길 69-3(가양동 26-28 영등포공고 정문 앞)에 있는 허가바위는 탑산 아래 천연 바위 동굴이다. 옛날 석기시대 사람들이 강가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으며 이곳에서 살았으리라 짐작되는 혈거동굴로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굴의 크기는 가로 약 6m, 세로 약 2m, 길이 약5m이며 사람들 1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다.
또 이 굴에서 양천 허씨(陽川許氏)의 시조 '허선문'이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기 때문에 이 굴을 양천 허씨의 발상지라고도 한다.

허준박물관

허준박물관은 허준선생의 다양한 자료뿐 아니라 모형, 영상, 터치스크린, 허준체험 공간 등이 있어 한의학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한의학 전문 박물관이다. 이곳은 234종의 한방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단순히 보는 박물관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방 음식전, 한방약재공예작품전, 약초표본전 등을 열어 한의학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예약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yeyak.seoul.go.kr/main.web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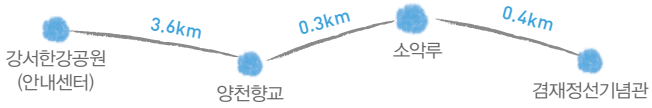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08 코스
형제투금 설화가 전해오는, 공암나루길

겸재가 바라본 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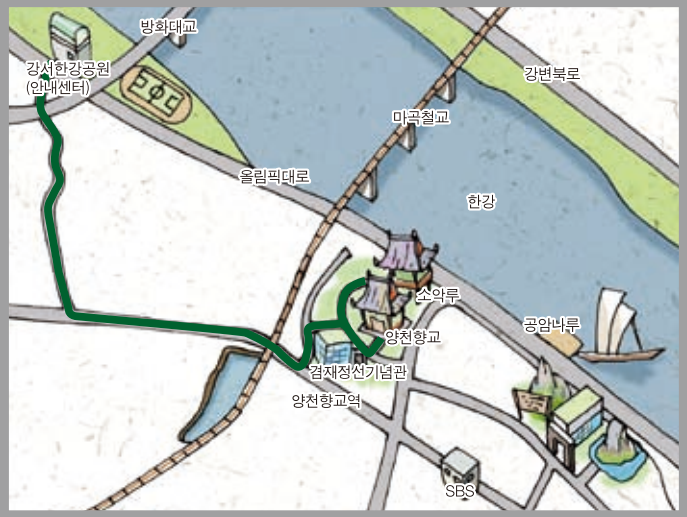
겸재정선길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양천향교와 끝없이 펼쳐지는
한강 전경을 볼 수 있는 소악루
그리고 한국 산수화의 아름다움을 살린 겸재 정선의 기념관까지
둘러볼 수 있다.



겸재정선길

양천향교



소악루

양천향교

양천향교는 양지바른 궁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기념물 제8호인 양천향교는 전국 234개 향교 중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향교이다. 조선조 태종 11년(1411)에 처음 지었으며, 노후된 것을 지난 1981년 전면 복원했다. 최근에는 2008년 5월 동재와 서재의 기둥이 훼손되어 2차 보수를 했다.

소악루

조선 영조 때 동복 현감을 지낸 이유가 양천 현아 뒷산 기슭 강변 악양루터에 재건한 것으로, 당시 이 누각에 오르면 안산, 인왕산, 남산, 관악산 등이 한눈에 보이고 탑산, 선유봉 및 드넓은 한강 줄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진경이 펼쳐졌다 한다. 조관빈, 윤봉구, 이병연 등 당대 명사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이 현령으로 있을 적에 그린 산수화 〈경교명승첩〉을 통해 당시 경관을 엿볼 수 있다. 소악루의 원위치는 정선이 그린 소악루, 소악후월 등의 그림으로 짐작해 볼 때, 강서구 가양동 산6-4(일명 세숫대바위) 근처로 추정되나 주변의 변화가 심해 한강변 경관 조성과 조망을 고려해 현 위치에 1994년 신축했다고 한다.

겸재정선기념관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 정선은 한국 산수의 고유한 미감을 살린 진경산수화라는 독자적 화풍을 구축했으며 말년에 양천현령(현재의 강서구청장 격)을 지냈다.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은 양천현령으로 있으면서 '경교명승첩', '양천팔경첩' 등 서울과 한강을 주제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특히 한강변의 옛 강서 모습인 이수정(二水亭), 소요정, 개화사, 양천현아, 종해청조, 공평층탑, 설평기려, 소악후월, 소악루 등의 작품이 전한다.
연면적 330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겸재정선기념관에는 기획전시실, 겸재기념실, 양천현아(현령이 집무하던 관아) 모형, 체험학습실,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

예약신청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http://yeyak.seoul.go.kr/main.web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09 코스
겸재가 바라본 한강, 겸재정선길

배 타고 떠나는

한강 옛 나루터길

조선시대에는 반드시 배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여러 곳에 나루가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 나루를 설치한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의 왕래를 위한 교통로,
물자의 운반을 위한 수송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초소로서의 기능에 있었다.

여의도한강공원 — 잠실 — 여의도한강공원

한강 옛 나루터길

뚝섬나루

현재 영동대교가 지나가는 뚝섬 선착장 부근에 있었던 나루터로서 일명 독백(禿白)이라 하였다. 조선 효종때 한강을 이용해서 목재 땔감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곳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세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조선후기 한강 상류에서 목재를 물길로 운반하였는데, 나라에서는 공사를 막론하고 1/10세를 받았다. 일제강점기 때는 이곳 주위에 재목이나 땔감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점포만도 40여 호가 넘었다고 한다.

한강진나루

조선시대 한강나루의 풍경은 조선시대 제1의 도선장으로 옛날에는 '한강도'라고 하였으며, 신라 때는 '북독'이라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평도' 또는 '사리진' 이라고 하여 중요한 나루터로 지목되었으며, 서울에서 용산, 충주로 통하는 큰 길의 요충지였다. 예전에는 서울의 남산 남쪽기슭인 지금의 한남동 앞의 강을 한강이라 하였고, 이곳의 나루를 한강도라 하였다. 오늘날 한강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시점에서부터 물줄기의 끝까지로 인식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한강이라 하였다. 도성에서 남소문을 나서면 바로 한남동의 한강마을이었기 때문에 수도 방위상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일찍부터 별감을 파견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감시하고 통행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이어서 이곳에 진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노들나루

노량진에서부터 양화진까지는 버드나무가 많았으며 특히 노량진에는 백로들이 많이 날아와 '노들' 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상류의 광나루와 함께 별감이 배치되어 서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살피게 하고 군사를 주둔시켰던 나루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큰 다리가 놓이고 노량나루가 있던 지점에는 노량진 수원지가 자리 잡고 있어 옛 정취를 찾아볼 수 없다.

마포나루

도성 서쪽 10리 지점에 있었던 나루로서 일명 삼개나루라 불렀다. 오늘날 마포대교 북쪽 방면으로 반대쪽의 여의도는 예전에 백사장이었다. 백사장을 지나면 시흥을 거쳐 수원으로 가는 길이 된다. 도선장에는 주로 상선들이 운집하였으며, 나룻배도 사선 중심이었다. 옛 부터 마포나루에는 새우젓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 마포 새우젓 장사라는 애칭이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양화나루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지역의 한강 북안에 있었던 나루터. 서울에서 양천을 지나 강화로 가는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상에 위치하였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특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일찍이 어영청에 소속되어 10여 척의 배를 가지고 순시하였으며, 진을 구축하여 관리들이 파견되어 있었던 곳이다. 조선 초기에는 용산이 으뜸가는 나루였으나 점차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큰 배가 용산까지 직접 못 들어오자 양화진이 중요하게 되어 크게 번창하였다고 전해진다.

예약신청 |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bckwak@seoul.go.kr
문의전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 Tel) 02-3780-0825

희망서울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ANGANGPARK 한강공원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10 코스

배타고 떠나는, 한강옛나루터길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범례

- ❶광나루길
- ❷송파나루길
- ❸뚝섬나루길
- ❹노들나루길
- ❺서강나루길
- ❻양화나루길
- ❼선유도길
- ❽공암나루길
- ❾겸재정선길

• 발행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 Tel. (02)3780-0783
• 발행일 : 2012년 9월 (2판 1쇄)
• 기획 · 디자인 : (주)지오마케팅 theBeetlemap Tel. (02)3443-9745

• 한강의 역사를 찾아서 안내지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입체그림지도 특성상 실제거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